



서 평
Review

자본주의가 변방에 드리운 그늘 속 사람들 이야기
— 임수진, 『커피밭 사람들』, 그린비, 2011.

정 이 나



책을 받아보면 으레 목차부터 펼쳐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것조차 하지 못한 채 표지에 실린 사람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렇게 나는 라틴아메리카 사람들 특유의 선량한 눈빛과, 그 뒤로 보이는 잔인한 커피밭 일상의 모순적 대립을 노려보다가 만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조심스레 책을 집어 들었다. 단숨에 책을 읽게 되었고, ‘휴’ 하고 긴 한숨을 쉬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밤새 뒤

척이면서 커피밭 사람들의 고단한 일상과 그들이 가졌을 ‘꿈’과 ‘희망’을 되짚어보다가 동트는 것을 보고 나서야 잠이 들었다.

책을 읽기 전 적잖은 고민이 있었다. 우선, 커피 농장 노동자와 함께

하면서 보낸 기록이라는데, 혹시 우리 방식으로, 우리만의 언어로 그들의 삶을 함부로 재단해 놓은 것은 아닐지, 그래서 책을 덮어버리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커피농장 노동자들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다시 한 번 가슴이 먹먹해져 한참을 헤어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도 들었다.

다행히도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은이 임수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그 어떤 담론이나 형식에 억지로 끼어 맞추지 않은 채, 진지하면서도 ‘유쾌’하게 풀어나갔고, 이야기를 읽는 나는 무겁고 고단한 그들의 삶에 대해 단순히 안타깝다는 무기력한 감정에 휘말리는 대신, 그 책임을 야누스와 같은 지금의 사회구조적 모순에 묻고 분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구 반대편 어디에선가 여전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 커피밭 사람들의 흔적을 남기고자 한 지은이의 용기 있는 시도는 성공한 것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야 쓰는 이도 읽는 이도 즐거운 일이겠지만, 타인의 치열하고 고단한 삶을 담아내야 할 때는 여간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것이 연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때에는 학자로서의 양심과 인간적인 미안함이 더더욱 들게 마련이다. 아마도 그러한 고민들이 지은이가 글을 써내려가는 내내 겪었을 고통이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무거움을 이겨내며 기록해 간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열악하고 고된 일상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커피밭 사람들의 일상을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한다. 약 2세기 전 영국 공장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은 마르크스와 레닌을 존재하게 했고, 노동자를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라틴아메리카 커피 노동자들, 아직도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그들의 잔인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뒤쳐진 저발전의 결과물, 아니면 정치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국가들의 정치 구조가 만들어낸 파생물정도? 이도 저도 아니라면, 라틴아메리카 민중의 태생적인 무능력과 게으름이 만들어낸 사회문화적 결과물? 가십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아마도 세 번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자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껏 그 어느 경제적 패러다임 혹은 정치적 패러다임으로도 지금의 라틴아메리카를 만족스럽게 해명하거나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새삼스럽게 라틴아메리카의 무자비한 가난과 불평등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불필요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그들의 현실은 명백하게 자본주의 역사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새벽 3시부터 시작되는 고된 노동의 일상, 아침 9시쯤 먹는 새참, 새참마저도 여의치 않은 니카라과 출신 계절노동자 등등. 이 책을 통해 그나마 새참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위로하는 커피밭 노동자들의 삶으로 들어가 보자. 그 누가 이들을 노력하지 않는 게으른 민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현실을 우리 사회에 투영해 보면 그다지 멀리 있는 현실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지은이가 산고의 고통으로 기록한 그들의 고단한 삶은 반세기 전 한국의 가난한 노동자들, 그리고 지금 현재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해고의 위협에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과 젊은 88만원 세대들이 겪는 좌절감과 박탈감은 동일한 역사적 맥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니카라과의 노동자들,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들을 '쥐'라고 부르며 멀리하는 코스타리카의 노동자들, 그리고 수확기가 되면 산속 어디에선가 나타나는 과이니 원주민들까지도 말이다.

서로에 대한 멸시와 부정은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대상을 오인하는 데서 온다. 정작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대상은 우리보다 열악한 조건의 사람들 혹은 이웃이 아니라, 현재 모든 자본주의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착취적 형태의 소외된 인간노동을 만들어 내는 모순된 사회경제구조이다.

이러한 사회경제구조 하에서 그들의 가난하고 비참한 일상은 끊임없

이 재생산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강요된 힘겨운 노동자의 삶을 가끔씩만 기억하고 안타까워하는 데에 그칠지도 모른다. 또 커피밭 노동자들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커피 값을 지불할 때 문득 떠오르는 그들의 흔적을 그저 잠깐 동안만 되새기는 데 그칠지도 모른다. 지은이가 남기고 싶어 했던 이야기, 가난하지만 진솔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렇게 점점 흐릿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이와 같은 생생한 삶의 현장을 담아내는 수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은 지은이의 의도였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이나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기초과정부(AHS) 연구원